

10월 19일부터 동절기 전 국민 무료 코로나 접종

고령층·면역저하자 적극 권고
12~64세 일반국민은 희망자만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권고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본인 희망 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비용은 전 국민 무료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接种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으며, 올해부터 함께 맞을 것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이다.
화이자사 제품이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성·안전성 확인을 통한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우선 활용되고, 모더나 백신도 도입되는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급가지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안에 국내에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며 검사·치료비 지원이 축소됐지만, 일단 올해 코로나19 접종 지원은 유지해 전 국민 무료다. 접종 기간은 다음 달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 동절기 접종은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에 1회만 맞으면 완료된다.
고위험군은 이날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다음 달 19일 접종을 시작한다. 12~64세 일반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하

고, 접종은 11월 1일 시작한다.
접종 기관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 예방접종 사이트와 전화(질병청 및 지자체 콜센터·의료기관)로 하면 된다. 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해서 백신이 있으면 맞을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절기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접종을 권고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무료 접종 시작일이 연령마다 조금씩 다른데, 코로나19 접종 시작일과 맞춰 동시접종을 하면 된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연령층은 동시접종 시 독감 접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윤석열 대통령, 11월 영국 국민 방문

찰스 3세 대관식 후 첫 초청 국민
준비 위해 박진 외교장관 영국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민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민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다.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한·영 관계를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친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런던에서는 11월 대통령 국민 방문 준비를 위한 한·영 전략대화, 파리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상황 점검과 전략 논의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런던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과 제8차 ‘한·영 전략대화’를 열어 양국 협력 방안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명절 앞두고 예절교육 받는 어린이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6일 청주 상당구청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이젠’ 앱서 확인하세요

<E-Gen>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도 활용

추석 연휴 기간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진료나 약이 필요하다면 앱과 콜센터를 통해 문 연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E-Gen)’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뜨는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도 확인 가능하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접속하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뜨는 별도 알림창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가 표시된다.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나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

지 콜센터는 129번,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번, 시·도 콜센터는 120번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추석연휴 운영 예정 병·의원은 일평균 4087개, 약국은 5226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가동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를 확인해 비응급 경증 환자는 응급실보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자격 인증교육 공감대 국방수송협회, 확대이사회 개최

한국국방수송협회는 최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36개 물류기업 대표·관계자와 함께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민·관·군의 연계 아래 군의 선진 수송체계 구축과 국방수송능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2년 창립됐다.
이번 이사회에는 이정휘(육군준장) 국군수송사령관도 참석, 축사를 맡았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해운항만물류를 주제로 강연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이종구 전 수송사령관과 박래문 람세스물류 회장 등 참석자들은 방산·안보·전략물자 운송 과정에서 전문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증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대차 사고 과실협의 내용 문자·카톡·이메일로 받는다

앞으로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오는 10월부터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리포트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긴다.